DOI | https://DOI.org/10.21481/jbunka..81.201905.211.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ナミヤ雑貨店の奇蹟)』에 나타난 '온가에시(恩返し)' *

윤 혜 영**
(e-mail : yun1971@cnu.ac.kr)

<목 차>

1. 들어가기
2. 작품 속 '온가에시'의 양상
3. '온가에시'에서 '온오쿠리'로
4. '온가에시'에서 '환원'으로
5. 나가기

キーワード：東野圭吾(Keigo Higashino), ナミヤ雑貨店の奇蹟(Namiya Zakkaten no Kiseki), 恩返し(repay the favor), 恩送り(giving grace), 還元(return)

1. 들어가기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ナミヤ雑貨店の奇蹟)』(2011.4～12『小説 野性時代』)[1]은 일본을 대표하는 추리소설 작가로 손꼽히는 히가시노 게이고(東野圭吾 1958～)의 작품으로, 가도카와(角川)서점의 특별사이트에는 전 세계 1,200만부 돌파라는 기술과 함께 "전 세계의 독자가 눈물을 흘린 감동 미스터리!"[2]라고 소개되어 있다. 한국에서도 발매 후 가장 많이 팔린 소설에 랭킹될 정도로 현재까지 스테디셀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3]

* 이 연구는 2018년도 충남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 충남대학교, 교수, 일본근현대문학

1) 2012년 3월 가도카와(角川)서점에서 단행본, 2014년 11월 가도카와문고판, 2017년 9월 가도카와쓰바사(つばさ)문고판이 간행되었다.
2) 「ナミヤ雑貨店の奇蹟 特設サイト」角川書店 https://promo.kadokawa.co.jp/namiya/index.php (검색일: 2019.03.25.)
3) "도서 리스트를 살펴보면 히가시노 게이고의『나미야 잡화점의 비밀』이 판매 1위를 차지하였고

www.kci.go.kr

작품의 인기에 힘입어 연극, 뮤지컬, 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되었는데[4] 그래서인지 이와 관련지어 간략한 서평이나 대중미디어와의 관련성을 기술한 기사 및 논문 등은 많은 편이다.[5] 그러나 히가시노 게이고의 다른 작품에 비해 학술적인 측면에서의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한국에서 발표된 학술논문으로 이 작품이 환상문학이라고 주장하며 나미야 유지(浪矢雄治 이하 나미야 노인)와 미나즈키 아키코(皆月暁子 이하 아키코)의 "사랑이야기가 없었다면 이 작품 속 환상의 근거는 없다"[6]고 언급한 것이 있을 뿐이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은 작가가 에세이에서 "과거의 인간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면 나는 어떤 것을 쓸까?"라는 의문점이 집필계기가 되었다고 밝히고 있는데, "시공을 이동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편지"[7]이다. 그리고 다양한 시대와 세대가 등장하는데, 상담자 역할을 하는 아쓰야(敦也), 쇼타(翔太), 고헤(幸平) 즉 세 명의 청년들이 사는 시대는 2012년, 그리고 나미야 노인이 사는 시대는 1980년대이다. 작품 끝부분에 나미야 노인의 젊은 시절인 1920년대도 잠깐 언급되고 있다.

그리고 이 작품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시대를 불문하고 '환광원(丸光園)'이라는 아동보호시설과 연결되어 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에는 실제 소리를 내어 말하기보다 소설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8]고 작가자신이 말

그 뒤를 무라카미 하루키의 『1Q84』, 그리고 2005년 출간된 오쿠다 히데오의『공중그네』가 3위에 올랐다. 『나미야 잡화점의 비밀』은 2012년 12월에 출간되어 다른 책들에 비해 판매 기간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1위라는 놀라운 성적을 보여주었다." (「지난 10년 우리가 사랑한 일본 소설 베스트 30 (특별기획)」교보문고 http://news.kyobobook.co.kr/movie/welcomeShowViewink?bookTV=TV&sntn_id=12945 검색일: 2019.03.25.)

4) 2013년 5월 11일부터 6월 2일까지 선샤인 극장, 6월 9일부터 16일까지 신고베오리엔탈극장에서 연극집단 캐러멜복스에 의해「한밤중에 하모니카를」,「시빅에서 아침까지」,「하늘에서 기도를」3편이 상연되었다. 2016년에는 4월 21일부터 5월 8일까지「네뷰라프로젝트 퓨어 시어터 BRAVA! presents」판으로 Zepp 블루시어터 롯폰기와 시어터 BRAVA!에서 상연되었다. 2017년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뮤지컬 컴퍼니 잇포리즈」판으로 도쿄의 포켓 스퀘어 자 포켓에서 상연되었다. 그리고 영화는 2017년 9월 23일에 공개되었고 한국에서는 2018년 2월 28일 개봉하였다. 홍콩·중국·일본합작영화로도 제작되어 중국에서 2017년 12월 29일에 공개되기도 하였다.

5) 정도언(2013)「잡화점 주인과 도둑들이 하는 상담 치료」『외국문학구공육』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pp.114-135, 斉藤ひろし(2017)「ナミヤ雑貨店の奇蹟」『映画芸術の原点』73(10) 日本シナリオ作家協会 pp.12-40, 鍋島淳裕(2017)「撮影報告 ナミヤ雑貨店の奇蹟」『映画撮影』 213 日本映画撮影監督協会 pp.16-19. 등

6) 김동혁(2016)「소설 속 시공간에 관한 환상성의 역할 고찰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을 중심으로」『한민족어문학회』 74 한민족어문학회 p.404.

7) 東野圭吾(2012)「特集 東野圭吾 ナミヤ雑貨店の奇蹟」『本の旅人』18 角川書店 p.27.

8) 別冊宝島編集部編(2009)『僕たちの好きな東野圭吾』宝島社 p.42.

www.kci.go.kr

하고 있듯이, 이 작품에는 '사랑', '꿈', '생명' 등 인간이 살아가면서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 계속해서 제시되고 있다. 그 중에서 '온가에시(恩返し)'[9]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 것이 주목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작품 속 '온가에시'의 양상을 살펴보고, 그것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2. 작품 속 '온가에시'의 양상

작품에서 상담자 역할을 하는 것은 나미야 노인과 세 명의 청년들이다. 먼저 1967년을 살아가는 나미야 노인은 동시대의 젊은이들, 예를 들어 빚을 지고 야반도주를 하려는 부모를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폴 레논(와쿠 고스케(和久浩介) 1970년에 상담)과 유부남의 아이를 낳을지 고민하는 그린 리버(가와베 미도리(川辺ミドリ) 1977년에 상담)의 상담에 응하고 마지막으로 세 명의 청년들이 보낸 백지편지를 받는다. 그리고 2012년을 살아가는 세 명의 청년들은 현재 시점에서 '달토끼(月のウサギ)', '생선가게 뮤지션(魚屋ミュージシャン)', '길 잃은 강아지(迷える子犬)'로부터 상담편지를 받는다. 편지를 쓴 세 사람은 나미야 노인이 도쿄에 사는 아들집으로 거주지를 옮겨 상담을 중단했던 1979년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두 축으로 나뉜 시간은 나미야 노인과 청년들을 편지로 이어주면서 하나의 원을 형성하고 있다.

이 중 '온가에시'라는 말을 언급하는 것은 달토끼라는 가명을 쓴 시즈코(静子), 가수로 성공한 미즈하라 세리(水原セリ 이하 세리), 그리고 길 잃은 강아지라는 가명을 쓴 무토 하루미(武藤晴美 이하 하루미)라는 여성이다.

먼저 달토끼는 암으로 죽어가면서도 자신의 꿈을 적극 응원해주는 남자친구의 바램인 "올림픽 무대에 서는 것이야말로 그에 대한 '온가에시'"라고 말하고, 세리는 유일한 혈육인 남동생을 위해 목숨을 바친 생선가게 뮤지션의 곡을 계속해서 부르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온가에시'"[10]라고 말한다. '온가

9) '온가에시'는 한국어로 "은혜 갚음, 보은, 보답, 답례" 등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한국어로 해석하기 힘든 일본 특유의 양상이 내포되어 있어 본 논문에서는 '온가에시'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하겠다. '온오쿠리'도 마찬가지이다.

10) 「私には愛する男性がいます。彼は私の最大の理解者であり、協力者であり、応援者です。私がオリンピックに

www.kci.go.kr

에시'를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은 하루미이다. 그녀와 관련하여 '온가에시'라는 말은 11번 등장하는데, 그녀가 '온가에시'를 하고자 하는 대상은 신세를 진 환광원과 친척, 그리고 상담자이다.

먼저 환광원에 화재가 난 사실을 알고 바로 찾아간 하루미는 관장에게 무엇이든지 돕겠다면서 "이 기회에 '온가에시'를 하고 싶"다고 말한다. 어려움에 처한 관장은 눈시울을 붉힌다. 그리고 그녀는 오랜만에 같은 환광원 출신으로 나무조각의 장인이 된 와쿠 고스케를 만나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나눈다.

> 체육관 밖에 벤치가 있었기에 둘이서 나란히 앉았다. 하루미의 말에 의하면 그녀도 화재가 난 것을 뉴스로 알고 달려왔다는 것이었다. 관장에게 돕고 싶다고 말한 것 같다.
>
> "신세를 진 시설이니 이 기회에 '온가에시'를 하고 싶어서."
>
> "그렇군. 대견하네."(「묵도는 비틀즈로」 p.253.)[11]

후지카와 히로시(藤川博)라고 이름을 바꾼 와쿠 고스케 또한 환광원의 화재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지만 그는 자신을 거두고 조각기술을 알려주는 사장이 가라고 해서 왔다고 말한다. 와쿠 고스케는 나미야 노인과 상담을 했던 사람인데, '온가에시'라는 차원에서 볼 때 하루미와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하루미가 '온가에시'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녀의 먼 친척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하루미는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었다. 그녀의

出ることを心の底から望んでいます。そのためなら、どんな犠牲を払ってもかまわないとまでいってくれます。実際、物質的にも精神的にも、数えきれないほど助けられました。彼のそんな献身があったからこそ、私も今までがんばってこられたのです。苦しい練習にも耐えられました。オリンピックの舞台に立つことこそが、彼への恩返しだと思ってきました。」(「回答は牛乳箱に」p.14.)

「この曲は、私がアーティストとして世に出るきっかけになった作品です。でもそれ以上に深い意味があります。この曲を作った人は、私にとって唯一の肉親である弟の命の恩人なのです。自分の命と引き換えに、彼を救ってくれました。その人に出会わなければ、今の私はなかったでしょう。だから私は、生涯、この曲を歌い続けるのです。それが私にできる唯一の恩返しなのです。」(「夜更けにハーモニカを」 p.128.)

11) 원문인용은 『ナミヤ雑貨店の奇蹟』(角川書店 2012)에 의한다. 번역은 논자가 하였고 인용페이지를 기입하였다.

「体育館の外にベンチがあったので、二人で並んで座った。晴美によれば、彼女も火災のことをニュースで知り、駆けつけてきたということだった。館長には援助を申し出たらしい。

「お世話になった施設ですから、この機会に恩返しをしたいと思って」

「そうか。偉いね」」

www.kci.go.kr

부모는 반대차선에서 트럭이 중앙분리대를 넘어 돌진하는 "보통 일어나기 힘든 사고"로 목숨을 잃었는데 유치원 학예회 연습을 하던 하루미는 기억을 잃을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 모두가 외면할 때 그녀를 거둔 것은 이모할머니였다. 고등학교 졸업 후 하루미는 평범한 회사에 취직을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친척집을 돕기 위해 호스티스가 되려고 한다. 그러나 청년들은 자세한 사정도 모르고 그녀를 책망하는데 이에 하루미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낸다.

> 사실 전 어렸을 때 부모님을 여의고 초등학교 졸업까지 6년간 아동보호시설에서 지냈습니다. 환광원이라는 곳입니다.
>
> 하지만 저는 행복한 편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할 때 친척집에서 저를 데려갔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까지 다닐 수 있었던 것도 그 집 사람들 덕분입니다. 시설에서는 친부모에게 학대를 받았다는 아이들도 몇이나 보았습니다. 보조금을 노려 아이를 데려간 집의 수양부모가 그 아이에게 제대로 먹을 것도 주지 않았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저는 정말 행복했다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
> 그렇기 때문에 더욱 언젠가는 '온가에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신세를 진 친척은 고령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아 얼마 남지 않은 저축으로 어떻게든 생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저 뿐입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회사에서 차를 타거나 복사를 하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서 기도를」 p.301.)[12]

"그렇기 때문에 더욱 언젠가는 '온가에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환광원과 친척에 대한 '온가에시'는 하루미에게 의무와도 같은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하루미가 은혜를 갚고 싶어 하는 또 하

12) 「じつは私は幼い頃に両親を亡くし、小学校卒業までの六年間を児童養護施設で過ごしました。丸光園というところです。
でも私は幸せなほうでした。小学校卒業のタイミングで、親戚の家に引き取ってもらえたからです。私が高校まで進めたのも、その家の人たちのおかげです。施設では、本当の親から虐待を受けていたという子供たちを何人も見ました。引き取られた先の里親が補助金目当てで、その子にはろくに食べ物さえも与えていなかったという事件もありました。それに比べれば、自分は何と恵まれているのだろうといつも思ってきました。
だからこそ、いつかは恩返し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考えているのです。でも、あまり時間がありません。世話になった親戚は高齢で、仕事をしていないため、残り少ない蓄えだけで何とか生活しているという状態です。彼等を助けてやれるのは、私だけなのです。そしてそれには、会社でお茶汲みやコピー取りをしているだけではだめなのです。」

www.kci.go.kr

나의 대상은 그녀를 사업가로 성공하게 해준 상담자이다.

> IT부문과 컨설팅부문, 이 둘을 주축으로 하여 '주식회사 리틀 독'은 성장하였다. 돌아보면 확실히 보통 일은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무토 씨는 선견지명이 있다"고 말했다. 확실히 조금은 그런 면도 있었다. 하지만 역시 '나미야 잡화점'의 편지가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잘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언젠가는 '온가에시'를 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나는 나 혼자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늘에서 기도를」 p.357.)[13]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에는 일본에서 '온가에시'의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는 〈학의 보은(鶴の恩返し)〉, 〈우라시마 타로(浦島太郎)〉 등에서 보이는 금기사항은 없다.[14] 그러나 '온가에시'에 집착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루스 베네딕트(Ruth Benedict)가 『국화와 칼(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1946)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일본 특유의 '채무'에 가까운 성향이 엿보인다.[15] 그리고 이들 모두가 나미야 노인이 아니라 청년들과 상담을 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도 특징적이다.

나미야 노인과 상담을 했던 사람은 폴 레논과 그린 리버이다. 폴 레논은 야반도주를 하다가 도망을 치지만 그의 부모는 사채업자들로부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족모두가 죽은 것처럼 위장하고 동반자살을 하였다. 그린 리버 또한 혼자 아이를 낳고 힘겹게 살아가다가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도 필사적인 노력으로 딸을 구한다. 폴 레논과 그린 리버는 부모를 원망했지만 진실을 안 뒤

---

13) 「IT部門とコンサルティング部門、この二つを柱に『株式会社リトルドッグ』は成長を続けた。振り返ると、明らかに出来過ぎだ。多くの人間から、「武藤さんは先見の明がある」といわれた。たしかに少しはそれもあった。だがやはり『ナミヤ雑貨店』の手紙がなければ、こうまでうまくはいかなかっただろう。だからいつかは恩返しを、と考えている。自分の力だけでは今の自分はない。」

14) 〈학의 보은〉에는 화살을 맞은 학을 도와주는 한 남자가 등장한다. 여인의 모습으로 변한 학은 그 남자와 결혼을 한다. 여인은 베를 짜서 돈을 벌게 해주는데 남자는 베를 짤 때 절대 안을 보지 말라는 말을 어기게 되고 여인은 다시 학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버린다. 〈우라시마 타로〉에는 한 어부가 괴롭힘을 당하던 거북이를 도와준다. 용궁의 초대를 받은 그는 그곳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만 나이 든 어머니가 걱정이 되어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절대 열지 말라던 선물로 받은 검은 상자를 열자 그는 백발노인이 된다.

15) "온의 여러 용법을 모두 관통하는 의미는, 사람이 짊어질 수 있는 부담, 채무, 무거운 짐이다. (중략) 일본인이 "나는 누구에게서 온을 입었다"고 말하는 것은, "나는 누구에게 의무의 부담을 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그들은 채권자나 은혜를 베푼 사람을 온진(恩人)이라고 부른다."(루스 베네딕트 지음/김윤식·오인석 옮김(2015)『국화와 칼』을유문화사 p.131.)

www.kci.go.kr

"자신이 지금 존재하는 것은 부모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생명의 소중함과 삶의 가치를 인식한다. 그러나 '온가에시'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청년들과 상담한 사람들은 각각 애인, 타인, 먼 친척이나 상담자 등에게 은혜를 받은 것이기에 '온가에시'에 대한 의무감이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온가에시'에서 '온오쿠리'로

앞에서 언급했듯이 '온가에시'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2012년을 살아가는 세 명의 청년들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온가에시'는 청년들과 동시대를 살아가는 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청년들이 상담을 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온가에시'라는 말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 작가는 "미숙하고 결점 투성이인 젊은이들"을 주인공으로 설정하면서 "인생의 기로에 섰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16]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이 작품을 썼다고 기술하고 있다. 작가의 시선은 현재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작년에 일어난 지진 이후 일본의 모든 곳에서 강제절전이 시행되고 있다"는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작년에 일어난 지진'은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을 뜻한다. 그리고 2010년 이후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한 무연사회(無縁社会)에 대한 문제의식이 작품의 기저에 깔려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작품 속에는 지진이나 쓰나미 등의 재해로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나미야 노인을 비롯한 그의 아들과 손주, 그리고 폴 레논의 레코드를 샀던 친구와 달토끼의 애인은 암으로 죽고, 그린 리버와 폴 레논의 사촌, 하루미의 부모는 자동차 및 바이크 사고로 죽는다. 그리고 생선가게 뮤지션은 화재로 인해 죽음을 맞이한다. 이것은 모두 예고되지 않은 갑작스런 죽음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죽으면서 누군가를 구하거나 희망을 준다. 이들의 죽음을 통해 살아남거나 삶의 의미를 찾게 된 사람들 중에 달토끼, 세리, 하루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16) 앞의 책 東野圭吾(2012) p.28, p.29.

www.kci.go.kr

미야자키 하야오(宮崎駿)의 애니메이션 〈고양이의 보은(猫の恩返し)〉 의 주제에 대해 "'자기다움'을 키워줄 수 있는 곳에서 '자신의 시간을 가지면서' '열심히 살자'라는 주제, 즉 '지금·여기'에 충실하자"[17]라고 기술되어 있듯이, "지금의 나는 나 혼자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하루미의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애인, 생선가게 뮤지션, 나미야 노인은 죽으면서 달토끼, 세리, 하루미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하였기에 그들의 '현재'의 가치가 더욱 강하게 인식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작품은 '온가에시'에서 끝나지 않고 한 단계 더 발전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루미는 은혜를 입은 환광원과 친척에게 '온가에시'를 실천하였다. 문제는 많은 조언을 하여 그녀를 성공하게 해준 상담자에 대한 '온가에시'이다. 그녀는 자신의 상담자가 나미야 노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미 나미야 노인은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었다. 이에 그녀는 나미야 노인의 33번째 기일에 열리는 "나미야잡화점 단 하룻밤의 부활(ナミヤ雑貨店一夜限りの復活)" 때 감사 편지를 쓰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나미야 씨의 조언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습니다. 자칫하면 세상의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영원한 저의 은인(恩人)입니다. 아무런 '(온)가에시'도 할 수 없는 것이 매우 안타깝지만 적어도 이렇게나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도울 것입니다. (「하늘에서 기도를」 p.381.)[18]

"앞으로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도울 것"이라는 말은 나미야 노인에게 직접적으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갚겠다는 의미이다. 즉 '온가에시'가 '온오쿠리(恩送り)'로 발전되는 것이다.

세리 또한 생선가게 뮤지션의 곡을 부르는 것이 그에 대한 '온가에시'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또한 죽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온가에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

17) 김영심(2006)『일본영화 일본문화』보고사 p.251.

18)「心の底から感謝しています。もしナミヤ様から助言をいただかなかったならば、今の私はありません。下手をすれば、世の中の底辺にまで沈んでいたかもしれないのです。あなたは永遠に私の恩人です。何のお返しもできないのがとても歯がゆいのですが、せめてこうしてお礼を述べさせていただきます。そして、今後は私が多くの人を救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www.kci.go.kr

> 이 곡은 제가 아티스트로서 데뷔를 하는 계기가 된 작품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곡을 만든 사람은 제 유일한 혈육인 남동생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그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이 곡을 계속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온가에시'입니다.
> (「한밤중에 하모니카를」 p.128.)

환광원에서 자란 세 명의 청년들에게 기억되는 세리는 "원아들의 자긍심이자 희망의 별이다. 언젠가는 자신들도 그렇게 빛나고 싶다는 꿈을 갖게 해주는 존재"이다. 이것은 같은 환광원 출신인 세리가 유명한 가수가 되었기 때문인데, 단순히 성공했다는 결과론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생선가게 뮤지션의 희생이라는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와 '온가에시'를 위한 그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세리는 부모의 학대로 동생과 환광원에 살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는 매우 내성적인 아이로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생선가게 뮤지션의 자작곡과 그의 희생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다. 또한 세리는 자신의 어머니가 동반자살을 꾀했다는 말을 듣고 삶의 의미를 잃고 자살을 하려던 그린 리버의 딸을 설득하여 오해를 풀고 자신의 매니저로 일하게 한다.

즉 세리는 생선가게 뮤지션에게 직접적으로 '온가에시'를 실천하지는 못하였지만 그의 노래인 '재생(再生)'을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숭고한 희생정신과 삶의 가치를 어필하면서 감동과 희망을 주는 형태로 '온오쿠리'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온가에시'에서 '환원'으로

'온가에시'는 받은 은혜를 당사자에게 갚는 것으로, 은혜를 준 자와 은혜를 입은 자가 존재한다. 이 작품이 편지의 형식을 띠고 있는 것 또한 이와 비슷하다. 편지는 '온가에시'와 같이 상호교환적인 것으로 상담편지를 쓰는 자와 이에 응하는 자가 존재한다. 이 작품에서 상담역을 맡고 있는 사람은 작은 잡화점을 운영하는 나미야 노인과 학식도 없고 실직 중인 세 명의 청년들이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애쓰던 나미야 노인과는 달리 "배려심도 없고 예의도 없다.

www.kci.go.kr

일부러 이쪽이 화를 내도록 도발하고 있는 것으로까지 느껴진다"는 말에서 엿볼 수 있듯이 청년들은 직설적인 말로 상담자들의 화를 부추긴다. 상담이라기보다는 처음에는 언쟁에 가깝고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을 속이고 있던 것"을 깨닫고 "눈이 뜨였다"는 달토끼의 말처럼, 편지를 보낸 사람들은 처음에는 본심을 숨기지만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인식하고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바뀐 것은 상담자들뿐만이 아니다. 청년들 또한 단순 인원삭감이나 회사의 도산, 그리고 부당한 처우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상태이다. 그들은 도둑질을 한 뒤 도망용 차가 고장이 나서 어쩔 수 없이 나미야 잡화점에서 밤이 새기를 기다리는 처지였다. 그곳에서 우연히 달토끼의 상담편지를 읽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하는 쇼타에게 아쓰야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어떻게든 해주고 싶다고? 웃긴 소리하고 있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어? 돈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연줄도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별것 없는 빈 집을 노리는 일 뿐이지. 그것도 전혀 계획대로 되지 않아. 어떻게 좀 돈이 되는 것을 빼앗았나 싶었더니 도망용 차가 고장 나. 그래서 이런 곳에서 먼지투성이가 되어 있지만. 자기 일조차 뭐 하나 제대로 못 하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상담에 응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지."19)
>
> (「회답은 우유통에」 p.24.)

그러나 결국에는 "이 사람이 감사하고 있는 상대는 우리야. 우리한테 고맙다고 썼어. 이런 우리한테. 쓰레기 같은 우리한테"라고 말하며 자신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눈물을 흘린다. 그리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겠다고 결심한다. 즉, 편지를 통해 인간과 인간의 마음이 연결되고 그들은 변화하는 것이다.

나미야 노인과 세 명의 청년들이 사는 두 개의 시간 축이 존재하는 시점에서 청년들의 편지가 나미야 노인에게 전달되면서 하나의 원을 형성하듯이, 본 작품은 이어질 것 같지 않은 경우와 사람들이 모두 환광원과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환광원이 설립된 배경에 대한 기술부분은 작품의 핵심을 이해하는 데

19) 「どうにかしてやりたい？　笑わせるなよ。俺たちみたいな者に何ができる？　金はない、学歴はない、コネもない。俺たちにできることといえば、けちな空き巣狙いぐらいだ。それにしたって、ちっとも計画通りに運ばない。何とか金目のものを奪ったと思ったら、逃走用の車が故障ときてる。だからこんなところで埃まみれになってるんだろうが。自分のことでさえ何ひとつ満足にできない俺たちが、人の相談に乗るなんてこと、できるわけないじゃねえか」

www.kci.go.kr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화재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환광원을 도우러 간 하루미와 환광원을 설립한 아키코의 남동생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나눈다.

> "처음 들었어요. 하지만 왜 누님이 보호시설을?"
> "그걸 설명하자면 좀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환원(還元)이라고나 할까?"
> "환원?"
> "이런 말 하면 자랑이 되겠지만 우리 조상은 지주였고 자산가였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나와 누나가 재산을 상속받았죠. 나는 내 회사에 투자했는데 누나는 불쌍한 아이들의 힘이 되려고 '환광원'을 지은 거죠. 누나는 학교 교사였는데 전쟁으로 많은 아이들이 고아가 된 것에 괴로워했죠."
>
> (「하늘에서 기도를」 pp.339~340.)[20]

나미야 노인과 한때 사랑의 도피를 하려던 아키코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자신이 사랑했던 나미야 노인의 고향 근처에 전쟁으로 고아가 된 아이들을 돕기 위해 환광원을 설립하였다. 그녀의 이러한 행동을 그의 동생은 '환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아키코가 살아있을 때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아키코는 자신의 재산을 전쟁이라는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돌려주고자 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에도 일본이라는 나라에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온가에시'에 대한 부채를 떠안고 살아가는 인물이 조형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본 작품에는 일본 특유의 '온가에시'가 작품을 관통하는 키워드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아키코가 환광원을 지은 시기를 고려해볼 때 전쟁은 구체적으로 1945년 패전을 의미한다. 이뿐만 아니라 작품 속에는 1970년대부터 2012년에 이르는 시기에 일어난 각종 사회문제와 재해, 재난 등이 매우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1980년 현재 일본경제는 결코 좋다고 할 수 없다. 오일쇼크의 타격이 아직

20) 「「初めて聞きました。でもどうしてお姉様は養護施設を?」
「それを説明すると少々話が長くなるが、一言でいうと還元かな」
「還元?」
「こういっては自慢になるが、うちの先祖は地主でね、それなりに資産もあった。親が亡くなり、私と姉が財産を譲り受けた。私は自分の会社に投資したが、姉は恵まれない子供たちの力になろうと思い、『丸光園』を作ったというわけだ。彼女は学校の教師をしていてね、戦争で多くの子供が孤児になったことに悩んでいた」」

www.kci.go.kr

이어지고 있고 대학생의 취업도 쉽지는 않다"라는 말과 같이 청년들에게 편지를 보낸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2012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 1980년은 히가시노 게이고가 대학교 4학년이었던 시기로 그의 지도교수 또한 "올해의 구인 상황은 불투명하다"[21]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일본이 고도성장을 이룬 것을 세상에 알리는 의미"로 오픈한 일본만국박람회, 플라자합의, 1989 헤세(平城)가 되었다는 기술, 쇼와(昭和)천황이 죽었을 때의 분위기 묘사, 1990년 3월의 총량규제, 1990년 8월의 이라크 쿠웨이트 침공, 원유가 상승, 경기후퇴, 토지신화, 컴퓨터・휴대전화에 의한 정보망, 인터넷 보급, 홈페이지 제작, 컨설팅 부문 중소기업진단사 국가자격, 경영부진 원인분석, 1995년에 발생한 한신아와지대지진(阪神・淡路大震災)과 2011년의 동일본대지진 등 일본사회의 변화와 흐름을 알 수 있는 용어들이 그대로 기술되어 있다.

종전 후 실의에 빠진 일본은 개인의 삶보다는 '경제성장'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워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버블붕괴로 인해 '취업빙하기'가 도래하였고 기업은 경영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절대적이라 믿었던 가치관을 상실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잃은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자살률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은둔형 외톨이 등도 늘어났다. 2000년대에 들어와 '잃어버린 10년'이 회복되기 시작하였지만 2011년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하고 후쿠시마 방사능이 유출되는 전후 최악의 재해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2010년 1월 NHK에서 방영된 <무연사회(無縁社会) - '무연사(無縁死)' 3만 2천 명의 충격>은 무연사회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는데, 이 방송에서는 가족과 떨어져 홀로 외로이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조명하고 있다. 이것은 핵가족화는 물론 사회의 구조나 가치관이 변하면서 가족뿐만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유대감이 희박해져가는 일본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작품 속에는 연결과 단절의 양상이 여러 가지로 제시된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을 끊는 것은 무언가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의 문제라고 기술되고 있고, 무언가를 계속 주고받으면서 자신을 인식하고 변화하는 인물들이 그려지고 있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21) 東野圭吾(1988)『あの頃ぼくらはアホでした』集英社文庫 p.278.

www.kci.go.kr

작품의 참다운 맛이 "테크놀러지의 종류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인간이나 인간관계의 변화나 그들의 마음 속"[22]에 있다는 말은 이를 반증한다.

작품 속 '환원' 또한 작가의 인간과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환원'은 아키코에서 끝나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하루미에게 연결된다. 그녀는 환광원의 화재소식을 듣고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임시로 살고 있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 환광원으로 달려간 적이 있다. 설립자인 아키코의 동생이 환광원을 운영했을 때의 일이다. 그러나 그가 죽은 뒤 그의 아들은 대리인에게 전권을 일임해 버린다. 대리인인 가리야(狩谷)는 환광원을 이용해 부정을 저지르고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자신의 이득만을 취하려고 한다. 이 사실을 안 하루미는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만 결국에는 "점점 더 방치해둘 수 없게 되었다.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환광원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자신뿐"이라고 생각하며 환광원을 인수할 계획을 세운다. "'온가에시'라고 하면 환광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늘 생각해 왔던 하루미는 아키코의 뜻을 이어받은 인물로, '온가에시'는 '환원'이라는 보다 큰 차원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5. 나가기

"'카멜레온 작가'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모든 장르에 손을 댄 초기의 작업이 앞으로 발휘될 것이다. 특히 그가 경애하는 마쓰모토 세이초(松本清張)와 같은 중후한 사회파 소설에 도전하면 대작가가 될 요소는 충분하다"[23]는 말은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의 탄생을 예견이라도 한 듯 하다. 이 작품은 재해문학이자 사회파 추리소설적인 성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을 살아가는 세 명의 청년들은 생선가게 뮤지션이 화재로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의 운명을 바꾸지는 않았다. "인간의 목숨에 관련된 일은 언급해서는 안 된다"고 기술되어 있듯이 동일본대지진 이후 쓰인 많은 작품들처럼 이미 일어난 일을 바꾸지는 않았다. 하루미에게도 한신아와지대지진이나 동일본대지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그녀의 소원을 이루게 해줄 힌트를 부여하

22) 上野建司·品川亮編(2010)『もっと！東野圭吾』 INFASパブリケーションズ p.119.
23) 月刊テーミス(2009)「村上春樹とも渡辺淳一とも違う。東野圭吾の多彩な小説がウケル'意外'」『THEMIS』 10号 テーミス p.85.

www.kci.go.kr

여 곤경에 처한 환광원을 지키게 하였다. 동시에 1920년부터 2012년이라는 시간적 배경 속에서 각각의 시대적 특징과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조명하면서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삶의 가치에 대해 피력하고 있다.

작품 속 '온가에시'에는 일본 특유의 '채무'성이 엿보이지만, 작가는 예로부터 인간의 유대관계를 지탱해 주었던 이념 중 하나인 '온가에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시작된 '온가에시'가 '온오쿠리'로, 그리고 사회적인 차원의 '환원'으로 이어지면서 확대되는 것에는 재해와 유대관계가 희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 시점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동혁(2016)「소설 속 시공간에 관한 환상성의 역할 고찰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을 중심으로」『한민족어문학회』74 한민족어문학회 p.404.

김영심(2006)『일본영화 일본문화』보고사 p.251.

루스 베네딕트 지음/김윤식·오인석 옮김(2015)『국화와 칼』을유문화사 p.131.

上野建司·品川亮編(2010)『もっと！東野圭吾』 INFASパブリケーションズ p.119.

月刊テーミス(2009)「村上春樹とも渡辺淳一とも違う。東野圭吾の多彩な小説がウケル'意外'」『THEMIS』10号, テーミス p.85.

東野圭吾(1988)『あの頃ぼくらはアホでした』集英社文庫 p.278.

_____(2012)「特集 東野圭吾 ナミヤ雑貨店の奇蹟」『本の旅人』18 角川書店 p.27. p.28. p.29.

別冊宝島編集部編(2009)『僕たちの好きな東野圭吾』宝島社 p.42.

「지난 10년 우리가 사랑한 일본 소설 베스트 30 (특별기획)」교보문고
http://news.kyobobook.co.kr/movie/welcomeShowView.ink?bookTV=TV&sntn_id=12945
(검색일: 2019.03.25.)

「ナミヤ雑貨店の奇蹟 特設サイト 角川書店」https://promo.kadokawa.co.jp/namiya/index.php
(검색일: 2019.03.25.)

논문 투고 일자 : 2019. 04. 10.
논문 심사 일자 : 2019. 05. 03.
게재 확정 일자 : 2019. 05. 07.

www.kci.go.kr

<要旨>

『ナミヤ雑貨店の奇蹟』における「恩返し」

尹恵暎

本研究は、「恩返し」というキーワードで小説『ナミヤ雑貨店の奇蹟』を考察したものである。

『ナミヤ雑貨店の奇蹟』で「恩返し」という言葉を使うのは三人の青年達に相談の手紙を送った人々である。彼等は恋人、他人、遠い親戚や相談者に債務に近い気持ちで「恩返し」をしようとする。これはナミヤ老人と相談した人々が親から恩を受けたことと対照的である。

青年達と相談をした人々は「恩返し」を実践するが、「今後は私が多くの人を救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という晴美の言葉からも分かるように、「恩返し」は「恩送り」へと発展する。何の繋がりもないように見える境遇とそれぞれの人はみな「丸光園」という児童保護施設と結び付いており、「丸光園」の設立背景が記述されているところに「還元」という言葉が見られる。

災害文学で社会派ミステリー小説の系譜に属すると言っても過言ではない本作品は、災害と人間の紐帯関係が薄れていく「無縁時代」と言われる現代において、昔から人間の紐帯関係を支えてくれた概念である「恩返し」を集中的に証明していると言えよう。したがって、個人的な次元から始まった「恩返し」が「恩送り」へ、そして社会的な「還元」にまで拡張されるのである。

A study of "repay the favor" in *Namiya Zakkaten no Kiseki*

Yun, Hye-Young

In this study, we considered the novel *Namiya Zakkaten no kiseki* using the key words "repay the favor."

Those who use the words "repay the favor" in *Namiya Zakkaten no kiseki* sent three young men a letter of consultation. They try to "repay the favor" to their lovers, others, distant relatives, and consultants, conveying a debt. This contrasts with those who consulted the elderly *Namiya* with grace from their parents.

Those who consulted with the young men forgive "repay the favor." However, as is evident from the words of Harumi, "I want to save many people from now on," "repay the favor" develops into "giving grace." People who seem to have no connection with each other are connected to a child care facility called "*Kankouen*." Where the background of the "*Kankouen*" is described, we can see the word "return."

It i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this work belongs to a genealogy of social mystery novels in disaster literature. It is said that it illuminates "repay the favor" which is a concept that has supported modern, human ties in "the innocent era" in which disasters and human connections are fading. Thus "repay the favor," which began from the personal dimension, is extended to "giving grace" and to the social "return."

www.kci.go.kr